

— 애드팩테크놀로지, 고성능 VoIP 게이트웨이 출시



네트워크 장비 전문업체 애드팩테크놀로지(대표 박수열)는 멀티 스택킹 기능을 갖춘 소용량, 고성능 인터넷전화(VoIP) 게이트웨이 제품인 '보이스파인더 AP1200'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한 개의 IP 주소로 여러 대의 AP1200을 연결해 대용량 VoIP 게이트웨이 한 대를 운영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스택킹 기능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또, FXO 포트의 PSTN 백업기능은 정전 또는 회선 장애시 기존 전화망(PSTN)으로 자동 전환시켜 주며, 고성능 라우터에서 지원하는 VRRP(Virtual Router Redundancy Protocol) 프로토콜도 기본 지원한다. 애드팩테크놀로지는 기존 4~8포트용 VoIP 게이트웨이를 가격 중심의 시장에 공략하는 한편, 이번에 출시한 AP1200은 VoIP 식별 번호 부여 시행에 맞춰 신규시장 개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유니텍전자, 'PC 한 대로 두 명' 매직트윈보드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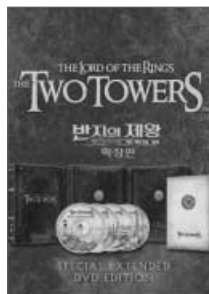


컴퓨터 주변기기 전문회사 유니텍전자(대표 백승혁)가 PC 한 대로 2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매직트윈보드'를 출시한다. 매직트윈보드는 국내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것으로 PS/2 확장코드를 이용해서 PC 한대에 키보드와 마우스를 2개씩 장착하고, 듀얼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그래픽카드와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한대 PC로 2명이 동시 사용할 수 있다.

IP 하나로 인터넷을 동시 사용할 수 있어 컴퓨터 구입이 부담스러운 사무실이나 학교, 관공서, 은행 및 미용실 등에 적합하다.

유니텍전자는 "2인 1 PC 공유를 통한 PC 원가절감은 물론, 사무실에 필요한 PC 대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 따른 전기요금 절감, 공간적인 이득 등 여러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니텍전자는 올해 720억원 매출에 영업이익 72억원을 목표로 수익성 위주 사업전략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 스펙트럼디비디, '반지의 제왕-두 개의 탑' 확장판 4만장 판매



스펙트럼디비디(대표 박영삼)는 '반지의 제왕-두 개의 탑 확장판'을 지난 해 11월 출시해 올 2월 초까지 4만장을 판매했다. 일반판 판매량 8만장까지 포함할 경우 12만장이 판매됐다.

반지의 제왕은 '올해의 DVD상'을 비롯해 '외화 부문 최고의 음질상'과 '최고의 스페셜 피쳐상'을 수상한 바 있다. 총 4장의 디스크로 구성된 이 DVD는 극장 개봉 때 삭제된 43분 분량의 영상이

추가돼 출시 전부터 반지의 제왕 마니아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 음성해설도 감독은 물론 작가, 출연진, 제작진 등 4종류로 되어있다.

스펙트럼디비디는 반지의 제왕 1, 2편에 이어 오는 4월 '반지의 제왕 3편-왕의 귀환'도 DVD로 출시할 방침이다.

— 비트컴퓨터, 전남대병원 의무영상시스템 구축 계약



비트컴퓨터(대표 조현정)는 전남대병원(원장 황태주)과 의무기록영상시스템(bitnixChart)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비트컴퓨터의 의무기록영상시스템은 진료시 발생하는 종이차트와 각종 이미지를 전산화하고 처방전달시스템(OCS) 환경에서 환자의 차트를 검색할 수 있는 첨단 의료정보 솔루션이다. 이에 앞서 비트컴퓨터는 고대의료원과 분당차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등에 의무기록영상시스템을 구축했다. 비트컴퓨터는 전남대병원이 전자의무기록(EMR)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선행사업으로 의무기록영상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 이노디지탈-티지코프 합병후 전자지불사업 진출 선언

전자문서관리(EDMS) 전문업체인 이노디지탈(대표 김종락)과 종합 전자지불회사인 티지코프(대표 정정태)는 기업결합을 선언하면서 전자지불사업, 기업용 포털구축사업에 공동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노디지탈과 티지코프는 향후 합병을 실시할 계획이며 매년 30% 이상 실적을 향상하고 올해는 매출액 327억원, 영업이익 35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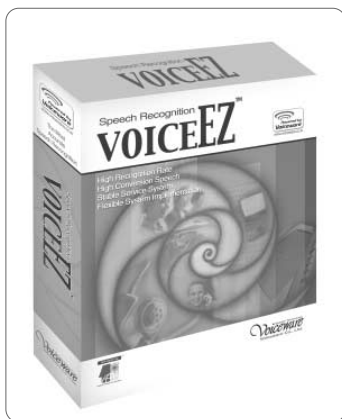
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사업전략·재무·홍보 등으로 구성된 테스트코프시스템을 가동, 본격적인 합병 절차를 준비중인 가운데 우선 기술력 및 영업 기반 통합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티지코프가 자체 개발한 전자지불 솔루션을 이노디지탈의 고객군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이노디지탈의 기업용 솔루션을 ASP(임대형 서비스)형태로 개발해 티지코프의 3000여 개의 온라인 가맹점에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게 된다.

또 기업용 포털 구축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며 스마트카드, e마켓 플레이스 및 디지털 콘텐츠 중개사업의 영역에까지 사업범위를 넓혀간다는 중장기 계획도 마련해 놓고 있다.

한편 이노디지탈과 티지코프는 지난해 12월 주식교환 이전을 결의했으며 지난달 27일 양사 주주총회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을 승인함에 따라 정정태 대표가 이노디지탈의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결합법인명과 CI 등은 추후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며 양사 130여 명의 임직원들은 오는 2월 말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신규 사옥으로 사무실을 통합·이전할 방침이다.

보이스웨어, 농협 텔레뱅킹 음성인식서비스 확대 구축



음성정보기술 전문업체인 보이스웨어(대표 백종관)는 금융권 처음으로 콜센터에 음성인식 기술을 도입, 1년간의 시범서비스를 실시했던 농협중앙회의 텔레뱅킹 음성인식서비스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 구축키로 했다.

농협의 음성인식 기반의 콜센터 시범서비스는 음성명령을 통해 잔액조회·계좌이체 등 각종 금융서비스와 농축산물 유통정보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다. 이번 서비스 지역 확대로 농협은 텔레뱅킹 처리 시간을 단축시켜 화선점유 시간을 줄이고 콜센터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윈텍, mini-LVDS 타이밍 컨트롤러 개발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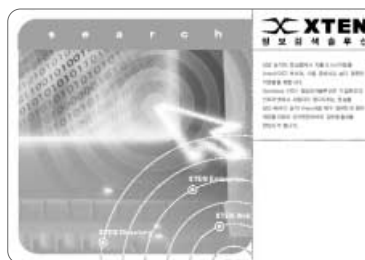
주문형 반도체 업체인 다윈텍(대표 김광식)은 최근 대면적 노트북, LCD TV, LCD 모니터 등에 내장되는 'mini-LVDS 타이밍 컨트롤러'를 자체 특허 기술로 개발,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타이밍 컨트롤러는 mini-LVDS TFT-LCD 패널에 입력되는 디지털 화상 데이

터를 처리, 이를 LCD구동IC(LDI)에 보내주고 전체 LCD 패널을 동작시켜주는 신호를 만든다. 다윈텍이 이번에 개발한 mini-LVDS 타이밍 컨트롤러는 기존의 TTL, LVDS, RSDS 기술을 이용한 제품보다 크기가 절반 정도 작다. 또 2.5V로 170MHz까지 동작을 할 수 있어 17인치 이상의 고화질 대면적에 적용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자파 차폐(EMI) 기능을 향상했으며 소비전력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mini-LVDS 타이밍 컨트롤러는 현재 미국의 TI와 일본의 자인(Thine)만이 개발에 성공해 양산을 준비중이다.

다윈텍은 올해 하반기에 양산에 착수, 국내외 주요 LCD 패널 제조업체에 이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05년에는 세계 타임컨트롤러 시장에서 점유율을 1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오픈베이스, 과학문화재단 CMS 구축



유·무선 통합 솔루션 업체인 오픈베이스(대표 정진섭)는 한국과학문화재단과 콘텐츠관리 시스템(CMS) 및 통합검색시스템 구축계약을 체결했다.

오픈베이스는 CMS 전문업체인 콘텐츠와이즈와 협력해

CMS를 구축하고 기존의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도 재구축할 예정이다. 또 디렉토리 및 사이트 검색, 과학문화포털인 '사이언스올(www.sicenceall.com)'의 콘텐츠 검색 구축 등 통합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지식서비스, 사용자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총망라하는 지식검색시스템과 뉴스브리핑 시스템까지 포함된다.

협력업체인 콘텐츠와이즈는 CMS를 기반으로 기존 콘텐츠를 재구축하며, 검색엔진과 연동, 멀티미디어 콘텐츠 관리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픈베이스는 'X-TEN' 검색 엔진과 지식검색 솔루션을 공급한다.